

손창섭 소년소설의 서지적 전모와 소년물 창작의 의미

—1955년~1961년 『새벗』 발표작을 중심으로

양한울*

요약

이 글은 1950년대 전후의 절망적 분위기와 개인의 체험을 소설로 형상화 한 신세대 작가 손창섭의 아동문학의 장르적 성격을 살핀 글이다. 현재까지 출판되고 있는 손창섭 소년소설 여덟 편에 대한 최초 발표본을 찾아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소년소설 작품의 서지적 전모를 정리하고, 1950년대 어린이 잡지 『새벗』의 성격과 1950년대 10대 어린이들이 즐겨 읽은 ‘소년소설’ 장르의 특질을 밝혀 손창섭의 아동문학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955년~1961년 사이에 『새벗』에 발표된 손창섭의 소년소설은 이후 어린이 문고 및 소설선집으로 기획·재출판 된다. 최초 발표시점 확인으로 대조환 바 손창섭의 소년소설과 성인소설들은 시기 별로 서로 유사한 창작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손창섭의 소년소설은 희망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면에서 성인소설과 차별되고 있는데, 이 글은 손창섭 아동소설의 담론적 특성을 전달 매체와 맞는 관계로 접근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손창섭이 참여한 1950년대 『새벗』은 문학을 통한 침윤으로 전후 어린이들을 희망찬 미래 주체로 양성하려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한 어린이 잡지였으며, 그가 선택한 ‘소년소설’은 핏진한 ‘현실성’으로 당대 사회를 향한 작가의 시선과 어린이를 향한 심정을 전달하는 아동문학 장르였다.

고학년 아동을 위한 소년물 창작의 의미를 통해 손창섭은 성인소설에서처럼 자신의 심연에 침잠한 시적 체험을 발화의 동력으로 삼아 민족의 미래인 어린이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들에게 위로와 바른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손창섭의 아동문학은 그가 성인소설에서 말하지 못했던 희망에 대한 유년의 갈망과 소설적 발현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손창섭의 소설을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손창섭, 소년소설, 현실성, 1950년대, 새벗, 아동문학, 싸우는 아이

1. 손창섭 문학을 해석하는 새로운 통로로서의 아동문학
2. 손창섭의 소년소설 여덟 편
3. 1950년대 『새벗』의 성격
4. 손창섭 아동문학과 ‘현실성’의 문제
5. 결론을 대신하여

1. 손창섭 문학을 해석하는 새로운 통로로서의 아동문학

『비 오는 날』과 『신의 회작』의 작가 손창섭은 주로 한국 전후 세대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손창섭의 소설이 구호적(口號的) 반공주의나 전쟁에 대한 환멸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작품이 풍기는 불구적 인간들의 “지린내와 구린내”는¹⁾ 1950년대의 체취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또, 자조적 고백으로 들리게끔 반복, 변주하는 몇 가지 이야기의 전형들은 일제 강점기라는 병리적 시공간에서 성장한 손창섭의 자기 발산의 흔적을 추적하게 한다. 이처럼 냉소적이고 고독한 소설체로 시대의 군상과 일화기억들을 풀어놓은 손창섭을 전후작가로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손창섭을 전후작가의 범위 안에서 마름질하는 것은 자칫 연구

1) 손창섭, 『생활적』, 『손창섭단편전집1』, 가람기획, 2005, 97면.

의 시각을 편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갖는다. 한국전쟁과의 연관성이나 세대적인 정체성에 천착하여 작가의 '절망'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후작가(戰後作家)에 대한 통상적 정의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태평양전쟁 등 몇 번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한국전쟁 전후(前後)에 본격적으로 활동·등단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형상화하려 한 경향의 문학가들이다.²⁾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손창섭의 소설에 깔려 있는 실존의 고뇌를 찾는 일이나 일군의 작가들과 함께 세대론적인 비교를 하는 일은 연구의 전제가 명확한 만큼 손창섭의 일부 작품을 걸러내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손창섭 소설에서 허무주의적이고 불행한 면이 부각되고, 그러한 특징으로 해명할 수 없는 작품들은 전후주의의 그림자에 가려지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행히 2000년대 이후 손창섭 연구는 『낙서죽』(1959)을 포함, 1960년대 이후의 장편소설로 지평을 넓힌다. 이들 연구는 특권화 된 1950년대의 단편소설에서 벗어나 손창섭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사적 고백의 성격과 민족주의적 성찰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지만, 손창섭이 처한 세대적 정체성에 관련된 고민이나 그의 1950년대 단편소설에 나타난 자전적 모티프와 다시 만나게 된다.³⁾ 중·후기작 연구 역시 손창섭 소설의 기초가 되는 패배와 우울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의 작품에서 희망을 논하기 어려움을 재확인 한다.

이러한 삶의 비극성을 바탕으로 손창섭 소설의 본령이 1950년대 단편

2) 이 정리는 한국 전후문학 연구에 가장 일반적으로 호출되는 김상선의 세대론을 참고로 하였다. (김상선, 『신세대작가론』, 일신사, 1982, 58-64면) 이 글에서는 1950년대 문단의 칭호를 따라 손창섭의 위치를 '신세대 작가'로 축소한다. 신세대작가란 전후작가를 세분한 개념이다.

3)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죽>>에 관한 일고찰-자전적 소설과 세대론의 관점에서』, 『한국현대문학회』, 2003, 299-328면.

김희진, 『손창섭 장편소설 『유명』에 나타난 내서널리즘과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연구』, 『국제어문』 제74집, 국제어문학회, 2017, 117-141면.

소설에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일반적인 가운데, 그 시대 어린이 잡지 『새 벗』에서 발견되는 ‘손창섭’이라는 이름은 매우 낯설면서도 흥미롭다. 1950년대 아동문단에서 활동한 성인문학가들⁴⁾ 사이에서 신세대 작가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을 뿐더러, 무엇보다 자멸적 태도가 기저를 이루는 성인문학과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양식과 푸른 꿈이 되어주어야’ 하는 아동문학의 동시적 창작이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행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창섭의 말에 따르면 그는 1972년 6월까지 “몇몇 잡지와 신문에 장편이 둘, 단편이 십여 편 되는 어린이 소설을 발표했다”고⁶⁾ 한다. 그러나 그가 다수의 소년소설을 썼다는 사실은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작품이 모두 전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모든 작품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⁷⁾ 할 정도로 연구자들조차 손창섭의 아동문학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한국문학사를 다룬 책에서조차 손창섭의 어린이문학에 대한 언급을 본 적이 없고, 단지 연표에서만 손창섭의 동화(소년소설) 작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⁸⁾ 정도로 비관심의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토양에서 손창섭 소년소설연구는 장편 『싸우는 아이』에 비중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또, 손창섭 소년소설의 총괄적 담론을 ‘희망’과 ‘싸움’으로 압축하는 것이 이들의 일치된 중론이며,⁹⁾ 아동문학가들의 분석도

4) 아동문단은 1950년대까지도 아직 엄격히 정비되지 못했다. 장르의 특성도 혼종적이었고, 아동문학 전문작가도 많지 않아 박목월, 유치환, 박남수, 김내성, 황순원, 김동리, 박경리 등 다수의 성인문학 작가들이 아동문단의 필진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5) 마상조, 『두 《새벗》 이야기』, 『아동문학평론』 제31권 2호, 아동문학평론사, 2006.05, 243면.

6) 손창섭, 『머리말』, 『싸우는 아이』, 대한기독교서회, 1972, 3면.

7) 장영미, 『손창섭 소년소설 연구 - 싸우는 아이와 장님 강아지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학회, 2009, 3면.

8) 이재복, 『빛의 세계로 통하는 고립된 목숨의 본보기 - 손창섭의 문학이야기』, 『우리동화이야기』, 우리교육, 2004, 25면.

9) 최명표는 손창섭 소년소설에 반복되는 고아의식과 폭력적 상황 타개를 작가의 개인의식 반영과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라고 하였다.(최명표, 『세계의 폭력성에 대한 탐구 방식 - 손창섭론』, 『한국근대소년소설작가론』, 한국학술정보, 2009, 262-268면)

대체로 비슷하다.¹⁰⁾ ‘그의 소설에 강한 인상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의 동화를 대할 때 소설과 동화의 세계가 다르다는 느낌을 우선 받을 것’인데¹¹⁾ ‘희망’이 이런 질감의 차이를 자아낸다고 본다. 이와 같은 희망의 발단은 ‘나라의 주체가 될 어린이들을 향한 희망과 기대’가 아동문학을 쓰도록 추동했다는 손창섭 본인의 소명(疏明) 때문에도,¹²⁾ 아동문학 장르의 역할기대 면에서도 응당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희망의 담론을 일상적인 아동문학의 정형에 부치기에는 손창섭 본인이 겪었던 유년이란 나락에서의 절망이었고, 그의 장기인 무망(無望)의 창작 태도와도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과연 그가 논할 수 있었던 어린이와 희망이란 어떤 성격의 긍정이었나를 되묻게 된다. 손창섭의 소년소설과 ‘희망’의 문제를 당연한 아동문학의 항등식으로 넘기기에는 그의 ‘희망의 기술(技術)’이 다분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에게 문학이란 ‘거부당한 기성사회, 기성 권위에 대한 개인의 억압된 정신적 수기요, 자기 고백의 과장된 기록’이기에¹³⁾

장영미는 ‘손창섭은, 어린이들이 비록 힘든 세상을 살지만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인물이 있다는 것으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어린 시절의 여러 결핍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표출하였다.’고 한다. (장영미, 앞의 글, 89-109면)

서동수는 『싸우는 아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손창섭이 갈망한 희망의 세상을 ‘합리적 근대’로 환치한다. (서동수, 『환멸의 세계와 문체적 개인의 탄생-손창섭의 『싸우는 아이』를 중심으로-』, 『문화와 번역』제21집,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동화화번역연구소, 2011, 155-174면)

10) 김제곤, 『소설가가 쓴 동화 한 편, 손창섭 『싸움 동무』』(2000.4), 『아동문학의 현실과 꿈』, 창작과 비평사, 2003, 234-242면.

김이구, 『소년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작은 어른’ 서사 - 손창섭 소년소설 『싸우는 아이』, 『어린이 문학』 35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2001.9, 20-31면.

이재복, 앞의 글, 25-40면.

임성규, 『이기와 위선에 맞서는 이유 있는 싸움의 기록 - 손창섭의 『싸우는 아이』』(대한기독교서회, 1972)-, 『어린이문학』 77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2009.06, 174-181면.

11) 김제곤, 위의 글, 237면.

12)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 이 나라의 어른 보다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튼튼한 나라,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못 되는 것은, 오로지 어린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만 있으면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하략)” ; 손창섭, 앞의 책, 같은 쪽.

13) 손창섭, 『아마추어 작가의 변』, 『손창섭단편집집1』, 가람기획, 2005, 463-466면.

더욱이 그러하다.

이 글은 주변부에 외떨어진 손창섭의 소년소설을 그의 성인소설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지금까지 알려진 손창섭 소년소설의 서지적 전모를 밝히고 소년소설 창작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은 손창섭의 소년소설에 담긴 희망의 윤곽을 분석하는 일이기도 하다. 손창섭의 문학세계에 비추어 반전과도 같은 긍정의 이야기를 그의 성인소설과 연결하는 과정은 그만큼 생소한 ‘고백의 장(場)’인 ‘소년소설’ 장르와 어린이 잡지 『새벗』의 성격을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문학의 끝은 길을 정확히 꿰뚫고 곳곳이 걸었던 소설가 손창섭’¹⁴⁾ 선택한 지면이 어떤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1955년~1961년 사이에 어린이 잡지 『새벗』에 발표된 손창섭 소년소설의 수용층을 구별하여 손창섭이 주목한 희망의 주체들을 검토함으로써 그가 전망의 부재 속에서 고심했던 희망의 결정(結晶)에 다가가는 토대가 되고자 한다. 본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먼저 작품의 정확한 최초 발표 지면을 밝히고, 이후 선별, 출판되어 온 작품집을 비교한다. 이 과정은 그동안 모호했던 서지 정보를 정돈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문의 두 번째 장에서는 1950년대 『새벗』의 선구자적 역할의 자임과 실천을, 본문의 세 번째 장에서는 해방 후 두드러졌던 ‘소년소설’ 장르의 핵심 성격을 살펴 손창섭의 아동을 향한 발화의 방식이 발현 매체와 형성하는 긴장과 균형을 살펴본다. 1950년대 『새벗』으로 파악한 손창섭 아동문학의 실재적 외현을 통해 그의 소년소설 창작이 어떠한 여기도 아닌 해결과 모색이었음을 논의해보고자 하며, 이제 그의 문학적 흐름 안에서 융화되기를 기대한다.

14) 김계곤, 앞의 글, 241면.

2. 손창섭의 소년소설 여덟 편

지금까지 알려진 손창섭의 소년소설은 총 여덟 편으로 장편이 한 편, 단편이 일곱 편이다. 가장 최근 만들어진 책이자, 연구자들이 기본 자료로 주로 삼는 책은 2001년, “우리교육”이 발행한 《《힘찬문고》 시리즈 23권, 『싸우는 아이』와 “24권, 『장님 강아지』” 두 권이다. 한 권에는 장편 『싸우는 아이』가, 다른 한 권에는 『장님 강아지』를 포함한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모든 단편은 작품 말미마다 “『새벗』 195○년 ○월”, “『손창섭 대표작전집』 1969년” 등 발췌 지면을 각각 명기하고 있고, 장편 『싸우는 아이』는 발췌 정보가 미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교육 책에 실린 작품들의 실제 수집(蒐集)처는 책에 밝힌 서지정보대호가 아니라, 원문을 2차로 추려 모은 또 다른 작품집인 것으로 보인다. 『싸우는 아이』(대한기독교서회, 1972)와 『손창섭 대표작전집 V』(예문관, 1969)을 장편집과 단편집으로 수집(蒐輯)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싸우는 아이』(대한기독교서회, 1972)에서 보는 동일한 발췌정보와 목차순서가 추정의 근거이다.

손창섭 소년소설 단행본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는 『싸우는 아이』는 1972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기획한 《《새벗문고, 〈한국신작동화선집〉》 시리즈 vol.9”로 처음 출판되었다. 『싸우는 아이』(대한기독교서회, 1972)는 ‘1950·60대에 ‘새벗’ 잡지에 나온 아이들의 이야기 중 ‘싸우는 아이’를 뽑아 모은 책’으로¹⁵⁾ 표제작인 『싸우는 아이』부터 단편 『꼬마와 현주』, 『장님 강아지』, 『돌아온 세리』, 『심부름』, 『너 누구냐』, 『싸움동무』까지 차례대로 일곱 작품을 엮어 놓았다. 단편의 순서는 소재별 분류와 발표연월 순서를 따라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단편 전 편은 작품 끄트머리마다 “『새벗』 195○년 ○월”로 원문 출처를 적고 있고, 장편 『싸우는

15) 『싸우는 아이』 표제지, 대한기독교서회, 1972.

아이』는 출처에 관한 어떤 정보도 알리고 있지 않다.(우리교육의 책과 같은 원문정보·작품배치이다.)

이후 이 책은 출판사 사정으로 발행기관이 “성서교재간행사(1986)”, “새벗사”로 정비되어 재출간 된다. 그렇지만 “《새벗문고, 〈한국신작동화선집〉》 시리즈 vol.9 『싸우는 아이』(대한기독교서회, 1972)”에서 “《새벗명작동화, 〈새벗 이야기들〉》 vol.43, 『싸우는 아이』(성서교재간행사, 1986)”로 총서의 기획만 바뀌었을 뿐, 책의 내용은 물론 판권지 정도를 제외한 머리말부터 표지화, 삽화에 맞춤법까지 동일해 1972년 대한기독교서회의 초간본과 같은 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새벗〉의 책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 발행된다.

1969년 예문관에서 초판 발행한 다섯 권짜리 『손창섭 대표작전집』에도 다섯 편의 소년소설이 실려 있다. 손창섭의 소설 선집에서 소년소설을 소개하는 일은 매우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여기 『손창섭 대표작전집』 제V권, 〈少年小說集〉장에¹⁶⁾ 『싸우는 아이』(대한기독교서회, 1972)에 엮이지 않은 새로운 단편 「마지막 선물」이 추가된 것이 발견되어 이 작품까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손창섭의 소년소설 여덟 편이 되는 것이다. 이 소설집의 모든 작품은 발표 기록 표기가 생략되어 있어 발표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목	발표 연월	발표지	구분	수록 도서
1	「꼬마와 현주」	1955년 11월호	『새벗』	단편	『싸우는 아이』, 대한기독교서회, 1972.
2	「장님강아지」	1958년 1월호	『새벗』	단편	

16) 『손창섭 대표작전집 V』(1971, 예문관)은 「通俗의 壁」, 〈掌篇集〉, 〈少年小說集〉 세 장 합본 구성이다. 이 중 〈少年小說集〉에 「꼬마와 현주」, 「싸움동무」, 「너 누구냐」, 「돌아온 세리」, 「마지막 선물」이 순서대로 실려 있다.(363-393면)

3	『돌아온 세리』	1958년 11월호	『새벗』	단편	
4	『심부름』	1957년 5월호	『새벗』	단편	
5	『너 누구냐』	1958년 7월호	『새벗』	단편	
6	『싸움동무』	1959년 3월호	『새벗』	단편	
7	『싸우는 아이』	·	『새벗』	장편	
8	『마지막 선물』	·	·	단편	

〈표1. 손창섭 소년소설 목록 - 작품수록도서별〉

손창섭 소년소설 연구는 이상의 선집에 의지해 작품 발표 시기를 추정해왔고, 정확한 발표지를 사조하지 못하는 미진함이 있었다.¹⁸⁾ 이들 연구가 편중되어 있는 『싸우는 아이』는 발표 연월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사월 혁명”, “자유”, “데모”¹⁹⁾ 등 작가의 시공간이 반영된 정치적 용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분석에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당대 아동들의 평범한 일상을 주로 다루고 있는 단편들에 대해서는 그 소재에 따라 연구 선호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편식 성향이 정확한 발표지 확인에 대한 필요성을 소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손창섭 소년소설의 발표 시기 확인과 장르적 성격 파악은 그가 아동물에 설계한 희망을 살펴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바탕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희망’이라는 키워드 아래 손창섭의 소년소설과 성인소설 두 작품

17) 이 글에서는 1971년 발행 도서를 자료로 하였다.

18) 아동문학평론가 김계곤은 ‘1991년 새벗사에서 나온 동화책 『싸우는 아이』에 실려 있는 작품이 쓰인 것은 대부분 1950년 후반부터 1961년 사이’로 잡는다.(김계곤, 앞의 글, 236-237면) 김이구는 ‘우리교육에서 2001년 다시 출간한 『싸우는 아이』가 언제 창작되고 발표된 작품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 어렵다’고 하며(김이구, 앞의 글, 21면), 임성규는 ‘그간 손창섭의 어린이문학 작품들의 발표 연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며 ‘연재 수록본을 꼼꼼히 찾아 정리했다’는 논문 한 편을 소개하지만(임성규, 앞의 글, 174면), 이 논문도 선집의 작품과 발표지 『새벗』과의 면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송수연, 『손창섭 소년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6.)

19) 손창섭, 『싸우는 아이』, 우리교육, 2001, 152면.

군의 동시대적 비교가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부진했던 정확한 발표 지면 색인을 선행하였다. 작품 발표 시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중요한 것은 1959년을 기점으로 손창섭이 성인소설에서 보여주었던 내용과 분량의 창작 경향 변화가²⁰⁾ 소년소설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 아직 찾아내지 못한 다른 어린이 소설에 대한 유추도 기대해 봄 직하기 때문이다.

손창섭이 등단한 1952년부터 4월혁명 이듬해인 1961년까지 발행된 『새벗』 잡지를 조사한 결과, 발표일이 공란으로 남겨져있던 『싸우는 아이』는 1960년 6월부터 1961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12회 분이 『새벗』에 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회】가 1960년 8,9월 합본호에 실린 까닭이며, 지금까지 단행본으로 출판된 『싸우는 아이』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1969년~1972년 예문관판 선집에서 찾아보고 있던 『마지막 선물』은 『새벗』 1956년 5월호에서, 나머지 단편들은 기존 정보와 동일한 잡지 면에서 확인되었다. 이들 작품을 발표 순서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제목	발표 연월	수록면	발표지
단편	1 『꼬마와 현주』	1955년 11월	24-30	『새벗』
	2 『마지막 선물』	1956년 5월	24-31	
	3 『심부름』	1957년 5월	26-33	
	4 『장님강아지』	1958년 1월	28-35	

20) 손창섭은 1952년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이후 1961년까지 대부분 순수 문예지에 단편 작품을 발표한다. 그러나 1959년, 『낙서족』(중편)을 시작으로 자전적 성격이 부각되는 글쓰기로 선회하여 1962년부터는 《동아일보》 등 대중신문에 장편소설을 연재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김영민은 '(1950년대 소설에서 보여준 것이 - 인용자)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일면을 착오의 여지없이 그려낸 리얼리즘이었다면 『부부』(1962, 첫 신문연재소설 - 인용자) 이후의 장편에서는 대중성에 근거한 소박하면서도 평범한 삶에 대한 욕구 뿐이다라고 평가한다. ; 김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14, 218면.

	5	『너 누구냐』	1958년 7월	26-33	
	6	『돌아온 썬리』	1958년 11월	40-45	
	7	『싸움동무』	1959년 3월	74-81	
장편	1	『싸우는 아이』	1960년 6월	52-59	『새벗』
	2		1960년 7월	104-111 ²¹⁾	
	3		1960년 8·9월	102-109	
	4		1960년 10월	96-103	
	5		1960년 11월	86-93	
	6		1960년 12월	106-113	
	7		1961년 1월	104-111	
	8		1961년 2월	102-109	
	9		1961년 3월	104-111	
	10		1961년 4월	74-81	
	11		1961년 5월	136-143	
	12		1961년 6월	134-140	

〈표2. 손창섭 소년소설 목록 - 『새벗』지 발표순서별〉

손창섭 소년소설의 서지적 전모를 밝히는 마지막 과정으로 『새벗』 발표본과 여러 번의 재간행을 거친 어린이 도서들에서 개작의 흔적을 대조하여 보았다. 『새벗』에서 『싸우는 아이』(대한기독교서회, 1972)와 『손창섭 대표작전집 V』(예문관, 1969), 『싸우는 아이』·『장님 강아지』(우리교육, 2001)로 지나오면서 원본이 몇 군데 수정·변경되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장님강아지』, 『돌아온 썬리』, 『싸움동무』에 있었던 장(章) 구분이 수정판에서 사라졌다. 두 번째로 오식된 글자가 정오되거나 표준어 규정이 변경된 맞춤법이 교정되었다. 세 번째로 『싸움동무』에서 어린이가 읽기에 부적절한 어휘가 순화된 문장으로 수정되었다. 네 번째

21) 작품 분량대로라면 104쪽-112쪽이어야 하지만 쪽 번호가 잘못 인쇄되어 "107"쪽이 두 번 있다.

작품명	『새벗』誌	『싸우는 아이』	『장님강아지』
		대한기독교서회/ 새벗사	우리교육
(1) 장(章) 구분			
『돌아온 세리』	3장 구성	.	.
(2) 맞춤법 교정			
『꼬마와 현주』	“고레라”	“콜레라”	“콜레라”
『돌아온 세리』	“승비”	“갈비”	“갈비”
(3) 어휘 순화			
『싸움동무』	“문수와 창호는 버 르장이 없이 마구 지랄이었습니다.”	“문수와 창호는 버 릇없이 마구 까불 었습니다.”	“문수와 창호는 버 릇없이 마구 까불 었습니다.”
(4) 제목 윤색			
『돌아온 세리』	『돌아온 세리』	『돌아온 세리』	『돌아온 세리』

〈표3. 『새벗』 ⇒ [소년소설 선집] 수정·변경 내용〉

로 『돌아온 세리』는 『돌아온 세리』로 개제되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기 몇 가지를 도서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문고 기획물에 수정된 내용은 ‘발표한 작품에는 미련을 남기지 않는다’는²²⁾ 손창섭의 변처럼, 개작이라 할 수 없는 편집진의 보정 정도의 수준이었다. 편집자들은 경우에 따라 비속한 표현에 손을 대기도 하였는데 그러나 『싸움동무』의 한 부분이었을 뿐 이외에 모든 작품에서 보이던 ‘후려치다’, ‘병신 개’ 등의 거친 표현은 그대로 옮겨 실고 있었다.

잡지 발표 원본과 소년소설 선집의 비교·대조로 지금은 구하기 힘든 “대한기독교서회”와 “예문관”의 책을 “우리교육”의 책으로 대신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되었다.

22) 손창섭, 『아마추어 작가의 변』, 앞의 책, 465면.

3. 1950년대 『새벗』의 성격

손창섭의 『새벗』 발표작을 확인하는 동안 그의 아동문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소년소설’과 ‘동화’, ‘(어린이)소설’ 등이 혼용되고 있었다. ‘소년소설’은 근대 아동문학이 형성되던 때부터 인식상 개념이 정의되어 있던 용어였지만,²³⁾ 1950년대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소년소설’, ‘동화’, ‘(어린이)소설’이 의미상 용어로 함께 통용되고 있었다. 『새벗』이 손창섭의 작품을 ‘소년소설’로 엄격하게 구분해 일컫지 않았던 것은²⁴⁾ 여기에 한국전쟁이라는 사정과 연결된 잡지의 사회적 기능과 『새벗』이 겨냥했던 독자층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작품 수록지면의 성격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화’와 ‘소년소설’이 아동의 정서 성장 수준을 고려하여 세분화 된 장르이지만 학교라는 공적 교육기관을 떠나 있는 다수의 어린 독자를 위한 잡지에서 아동의 정서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별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창섭이 선택한 ‘소년소설’이라는 아동문학 장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 잡지 『새벗』의 성격과 아

23) 아동문학의 본격 출발점이 되는 『어린이』(1923.3~1934.2)를 창간한 ‘방정환은 낮은 연령의 아이들을 위한 ‘동화’보다 높은 연령의 ‘소년’들에게 주는 ‘소년소설’을 많이 창작했다. ‘학생소설’로 발표된 『萬年야쓰』를 통해 방정환은 동화와 소년소설을 다르게 인식함을 알 수 있고, 『신청년』의 ‘단편소설’ 『금시계』의 인물들의 연령을 ‘가없는 어린이들로 낮추어 『어린이』의 ‘소년사진소설’ 『금시계』로 개작한 것은 청년보다 연령이 낮은 어린이, 즉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년소설’로 고쳐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희경,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경진출판, 2014, 272-290면.

24) 『새벗』이 해당 권 호의 목차와 작품 본문 시작 면에 적은 작품 별 장르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목	『꼬마와 현주』	『마지막 선물』	『심부름』	『장님강아지』
목차표기	소설	소설	동화와 소설	동화
본문표기	소설	소년소설	소년소설	소년소설
제목	『너 누구냐』	『돌아온 썰리』	『싸움동무』	『싸우는 아이』
목차표기	동화·소설	소설	동화와 소설	.
본문표기	소설	소년소설	소년소설	연계소년소설

동 문학사적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되겠다.

1950년대 아동문학의 행보는 해방 이후 아동문학이 창작·소비되던 연속간행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아동문학의 장르 문제에 중요한 요소는 수용자의 연령이고, 당대 아동 잡지는 겨냥 독자층과 잡지의 지향을 통해 아동문학의 세부장르를 구체화하고 있었는데 특히 ‘소년소설’은 미성년 독자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산문 장르로 통칭되기는 했어도 반대로 소년소설이라 하여 모든 연소(年少) 독자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년소설 작품은 수록된 매체를 함께 볼 이유가 두루 있는 아동문학 장르였다. 또, 1950년대 초의 (상업적 잡지를 제외한) 아동 잡지 발행은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던 한국 사회에서 아동 교육과 정서 순화에 대한 문인들의 치열한 고민과 책임을 타개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였다.²⁵⁾ 당대의 대표적 공론의 장인 신문 기사에서 확인하는 ‘아동이 명일의 시대를 형성할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동문학 문제는 좀 더 진지한 고찰과 검토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췌론(贅論)을 요(要)치 않고도 넉넉히 알 수 있을 일이고, 인류의 내일을 형성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작업임에도 아동들에게 읽히울 잡지는 단 몇 종에 불과하다’는²⁶⁾ 한 원로 아동 문학가의 상업주의적 저널리즘에 대한 우려는 1950년대 초의 아동잡지가 전후 어린이들과 아동문학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새벗』(1952.1~2010.7)은 6.25전쟁 후 어린이들을 위한 독물(讀物)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동시·동요·학습·오락·교양 등에 관한 읽을거리를 제공’한²⁷⁾ 어린이 종합 월간지였다. 1950년대 아동

25) ‘한국전쟁 이후의 현실은 진정한 아동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문학인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 시련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잡지를 발간하게 된다.’; 박영기, 『1950년대 한국전쟁시기 아동잡지의 문학 교육적 양상과 의의—아동구락부,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vol.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351-352면.

26) 한정동, “아동문학의 현상”, 〈동아일보〉, 1955.1.25., 제4면.

잡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현대 개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분되어 있었다. 『새벗』은 국민학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독자층으로 두고 있었고, 비슷한 독자층을 가진 『소년세계』(1952.7~1956.9·10), 『어린이 다이제스트』(1952.9~1953.12·1954.1)와 함께 1950년대 3대 잡지로 불리며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였다. 이 잡지들은 문예지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문학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전인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이원수가 주재한 『소년세계』가 반공 등 사실주의 문학과 독자와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 문학교육에, 강소천이 창간한 『어린이 다이제스트』가 직접적인 현실 반영보다는 정서 함양을 통한 문학 교육에 치중했다면,²⁸⁾ 『새벗』은 민족, 민주, 자유 등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요구하는 문학작품들이나 기획 기사를 통해 문화주의와 민족주의를 계몽하는²⁹⁾ 잡지였다. 『소년세계』와 『어린이 다이제스트』는 손창섭이 『새벗』에 활동을 시작하는 1955년을 전후로 폐간된다. 손창섭이 이 두 잡지에 연재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휴전 후 1954년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오는 아동용 잡지의 즉출 현상 속에서 교육적 종합 문예지로서 홀로 명맥을 잇고 있던 『새벗』에 꾸준히 작품을 창작한 기록 하나라도 손창섭의 아동문학에 깃든 정신을 짐작하기 충분하다고 본다.³⁰⁾

『새벗』은 긴 역사만큼 다양한 변향의 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1950년대만큼은 ‘문화주의와 민족주의, 인문학적 교양과 민족의 미래주체로서의 어린이 계몽’으로³¹⁾ 그 방향성이 공고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954년

27) 마상조, 앞의 글, 248면.

28) 박영기, 위의 글, 361-377면.

29) 장수경, 『어린이 잡지 『새벗』의 성격과 의의 - 1950년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6, 73면.

30) “동란이 끝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 參與成人作家인 黃順元·金來成·(…)·安壽吉 등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 가고, 孫昌涉·朴容九·朴景利·朴南秀 등만 눈에 띄었으며, 주로 李元壽·(…)·金英一·姜小泉·(…) 등이 動畫 兒童小說部門에서, 尹石重·朴木月·(…) 등이 童詩部門에서 계속 활동함으로써 『새벗』의 主筆陳은 차츰 아동 문학만을 지켜온 이들에 의해 유지되기 시작했다.”;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481-482면.

~1963년 동안은 『어린이 다이제스트』 중간 후 『새벗』으로 자리를 옮긴 강소천이 편집에 긴요히 간여하던 기간이라 1955년~1961년 사이 『새벗』에 실린 손창섭의 작품은 사실상 『새벗』의 지향성에서 허락된 작품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강소천은 기독교인 월남문인으로, 『사상계』로 옮겨간 전임 편집주간 전택부의 사상을 이어받아 『새벗』을 지휘한다. 『새벗』을 아동문학 위주로 키우는 데 남다른 공로를 세운 강소천의³²⁾ 노력으로 60년대 초까지는 종래의 소년문학적 순수성이 아직 보호되고 있었다. 1950년대 『새벗』의 편집진은 ‘어린이를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창간 취지에 따른 소임을 편집 체계, 기획 철학으로 실천함으로써 전후 어린이를 민족의 미래를 견인할 주체로 계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문예란의 산문작품은 전쟁이라는 불행한 현실에 처한 아동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육적 아동소설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에 한 역할을 담당하는 작품들로 꾸려졌다.’³³⁾

살펴본바 『Children's Friend, 새벗』은 노골적 선동을 견제하고 문학을 통한 침윤으로 전후 어린이들의 정서 수준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민족정신을 고양시키려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새벗』의 발행은 크게는 도래할 민주사회의 민격(民格)을 갖춘 희망찬 미래 주체를 양성하는 문화·문학

31) 장수경, 앞의 논문, 61-71면.

32) 마상조, 앞의 글, 248면.

33) 『새벗』은 1952년 1월 1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간, 새벗사(一社)에서 발행된다. ‘대한기독교서회’에 재정적 배경을 두었고, 북한출신 기독교계 인사와 기독교도 월남 문인들이 창간, 기획, 편집, 창작에 관여하였다. 때문에 1950년대 『새벗』이 받을 수 있는 불가피한 오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의 『새벗』은 종교적·친미반공주의적 성향의 출판물이 아닌, 문화주의적·민족주의적 지향성을 보여준 소년문학적 문예지였다. 이것은 잡지 운용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 하던 월남문인들의 정신적 핵심 가치와 그들의 운동성과 관련이 있다. ‘당대에서 가장 양심적인 잡지였고, 아동문학의 타락을 방지하는 데’(이재철, 436면) 이바지한 『새벗』은 ‘건전한 어린이 문화를 기획하고 전파한 매체로서 1950년대 내내 아동문학 작가와 작품을 생산하는 데 지대한 공적을 남긴 잡지’로(장수경, 80면) 시대의 몫을 감당하였다. ; 이재철, 앞의 책, 480-490면; 장수경, 앞의 논문; 마상조, 앞의 글 참조.

사업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손창섭이 미래에 대한 긍정과 희망이 농후한 어린이 잡지를 선택했고, 그 잡지로부터 게재를 허락받았다는 점은 바꿔 말해 그의 ‘전후아동소설’에도 그러한 성격이 녹아 있다는 이야기기가 된다.

앞서 말한 ‘3대 잡지’ 중 『소년세계』는 강한 교육적 목적으로 인해 높은 연령의 독자까지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 또, 『어린이 다이제스트』는 국민학교 고학년용을 위한 소설 장르 작품을 싣고 있지 않았다.³⁴⁾ 손창섭이 또 어떤 어린이 문학을 이야기했는지 모두 알려져 있지 않기에 『새벗』의 눈높이에 맞춘 ‘소년소설’ 장르가 그의 아동문학의 범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벗』 잡지의 주 수요층이 손창섭의 불행한 유년을 덧대 볼 수 있는 연령이라는 것은 그의 아동문학의 속내로 좀 더 깊이 다가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벗』 발표작의 주인공은 하나같이 초등학교 고학년생들로 손창섭이 ‘냉엄한 현실과 대결을 시작한 유소시’와³⁵⁾ 비슷한 나이의 소년들이다. 그의 소년소설 세계에 등장하는 부모가 그리운 아이, 호구 해결에 나선 아이, 불의와 싸우는 아이, 불구의 생명에게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아이는 모두 작가의 성인소설과 자신의 회고에 있는 유년의 주인공을 연상시킨다. 문학잡지로서 순수성이 온전했다는 점, 월남문인이 움직인 어린이 전 문지였다는 점, 손창섭이 기독교 문화에 친숙하였다는³⁶⁾ 점으로는 그의 『

34) 『소년세계』에는 동화, 소설, 사진소설, 소년소설, 소녀소설, 연재소설, 애국소설, 역사소설, (...) 등의 용어가 보인다. 그런데 『어린이 다이제스트』에는 ‘동화와 이야기’, ‘세계 명작과 동화’ 등으로 작품을 구분했고, 소설 장르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 원종찬, 『해방 이후 아동문학 서사 장르 용어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청소년문학장르론』, 청동거울, 2013, 102면.

35) 幼少時부터 現今에 이르기 까지 나의 努力의 大部分은 衣食住를 解決하기 爲해서만 提供되어 왔다. 小學校 五學年 때 母親이 改嫁하자 부터 七旬이 가까운 祖母를 모시고 나는 自力으로 生活를 開拓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열 세살 먹은 나는 그 時期에 이미 冷嚴한 現實과 正面으로 對決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 손창섭, 『나의 作家修業』,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55.9, 136면.

36) 손창섭의 기독교 친화적 성향은 작품 여러 곳에 숨김없이 드러난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

새벗』지 활동과 아동문학에의 참여, 또 당시의 어려운 현실에 대조한 희망의 제시 방식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손창섭의 아동문학 창작과 『새벗』에의 참여가 우연한 조합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소년소설이라는 장르의 주 성격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4. 손창섭 아동문학과 ‘현실성’의 문제

‘아동문학(兒童文學)은 일반적으로 동심적 성인 작가가 아동이나 동심을 간직한 성인에게 읽힐 것을 목적으로 창작한 모든 문학작품을 의미한다.’³⁷⁾ ‘초창기 아동문학의 대분류인 동요와 동화 중 동화는 보다 본격적인 산문 문학인 소년소설을 낳고’,³⁸⁾ 동화와 소년소설은 대표적인 근대 아동서사 장르로 발전한다. 복잡한 현실 사회에 눈뜨기 시작한 상위 연령 아동층의 발견과 그들의 처지를 소설화하려는 아동문학의 현대적 의의에서 소년소설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소년소설을 읽는 ‘소년’들은 현실을 인식해가기 시작하는 ‘예비성년기’에³⁹⁾ 진입한 아이들이라 말할론적 사고

했을 뿐 아니라 몇몇 교회에서 다년간 찬양대를 지도해온 동욱(…)은 꼭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 원구는 또다시 동욱의 과거와 그 집안을 그려보며, (…) 동욱을 아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비 오는 날』, 『손창섭단편전집1』, 가람기획, 75-77면.), “도현은 모친이 (…) 미국인 선교사 집에서 보모 노릇을 한다고 솔직히 대답했다.”(38면),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주신 거예요. 그 귀중한 목숨을 내걸구 도현씨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낙서죽』, 『손창섭대표작전집 I』, 예문관, 1971, 53면.) 또, 아내 지즈코 여사의 인터뷰로 손창섭의 일상에서의 기독교 수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정식으로 교회에 다닌 적은 없습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다닌 적은 없어요.” 그리고 보니 거실의 책장에 일본어 성경이 꽂혀 있었다. (…)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들었어요.”(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b, 2014. 98-119면.)

37)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208면.

38) 이원수, 『아동문학입문』(1965), 『아동문학입문』, 한길사, 2001, 101면.

39) 이 글에서는 소년소설 장르의 대상에 대하여 현대의 발달단계 개념인 ‘청소년기’ 대신 ‘예비성년기’라는 용어를 썼다. 대체어 조어에 대한 설명은 오세란의 논문 〈3장. 소년소설과 청소년기〉를 참조한다.

를 하는 어린이만큼 천진무구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존체제에 뒤여겨 반목과 타협을 반복하는데 익숙해진 어른들과도 또 다른 과도기적 존재들이다. 때문에 동화가 소설에 비해 환상적(공상적) 특징과 시적인 특성을 강하게 갖는다면 비교적 높은 연령대를 독자로 두는 소년소설은 현실적 특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소년소설은 ‘현실과의 갈등을 주축으로 하며 사실주의적 세계관과 기법에 의해 창작된 만큼 현실 구조의 모순이나 비극성이 강조된다.’⁴⁰⁾ 즉, 소년소설이란, ‘소년소녀소설의 준말로서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소설을 대체로 일괄해 통칭하는’⁴¹⁾ 동화와 성인소설 사이에 있는 교량적 산문장르라고 할 수 있다.

휴전 후 남한사회가 안정체제로 접어들에 따라 높아지는 취학률은 아동잡지 발간의 양적 증대와 함께 아동산문문학, 그 중에서도 소년소설 생산의 약증으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을 보는 이재철은 ‘전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유무명의 성인 소설가들의 소년소설물 대거 참여가 소년소설의 유행을 촉구했고, 그 부작용으로서 50년대 통속대중아동문학의 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한다.⁴²⁾ 아동문학의 상업화와 소년소설의 유행이 맞물린 1950년대 아동문단을 ‘통속팽창기(1950~1960)’로 정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손창섭의 소년소설은 흥미위주의 자극적 내

년 소설) 일부를 발췌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소년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독자의 연령은 현재 청소년에 해당하는 십대로 볼 수 있기에 소년소설은 아동과 더불어 현재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위한 장르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 ‘청소년’은 청년, 소년, 아동에 비해 늦게 성립된 집단이므로 소년소설이 형성되던 초기의 서사가 사실상 청소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독자를 위한 장르였다 해도 당시의 ‘소년’이 ‘청소년소설’에서 정의 하는 ‘청소년’인가 고민해야 한다. (...) 이렇게 청소년 독자를 위한 작품을 소년소설이라 칭하는 경우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된다.” (오세란, 『청소년소설의 장르 용어 고찰』, 『한국아동청소년문학장르론』, 청동거울, 2013, 292-294면.)

40) 엄희경, 앞의 책, 270면.

41)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83, 205-206면.

42)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386-387면.

용도 아니며 구체적인 소년상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1950년대 소년소설을 설명할 수 있는 ‘유행의 대열’이나 ‘용어의 외피’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담론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오히려 아동들이 겪는 현실과의 갈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아래의 두 인용문은 손창섭 소년소설의 현실묘사와 인물묘사에 반영된 현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소년소설의 현실적 묘사가 비슷한 시기 『새벗』지에 소개된 작품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려준다.

동조네 집에서 오십 메터 쯤 떨어진 비탈에, 판자집이 몇 채 있었읍니다. 그 들쭈집 옆방에 덕수네가 새로 들었읍니다. 덕수네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단 두 식구였읍니다. 덕수 아버지는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읍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잠을 덜 잔 사람처럼, 늘 눈이 빨개 있었읍니다. 허줄한 노동복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읍니다. 아침이면 곡괭이와 삽을 메고 어디로 일을 나갔읍니다. 그러나 일 가는 날보다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읍니다. 덕수 아버지는 술을 먹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읍니다. 술만 취하면 동네가 떠나 가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유행가를 부르고 했읍니다. (...) 어머니도 누나도 없이, 저런 아버지와 둘이 사는 덕수가 무척 가엾게 여겨졌읍니다. (...) 덕수 아버지는 누더기 살은 이불을 걸치고 여태 자고 있었읍니다. 한 구석의 풍로 위에서는 남비가 끓고 있었읍니다. 덕수가 지금 아침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열살 먹은 덕수는 아침 저녁 제 손으로 밥을 지었읍니다. 부엌이 없어서, 방 한 구석이 아주 지저분했읍니다. (...) “아버지 사친회비 줘.” (...) “그러문 아예 학교 집어쳐라. 업는 놈이 공분 해서 뭘허니.” 할 수 없이 동조와 함께 학교로 걸어가는 덕수는 몇번이나 울먹울먹 했읍니다. (...) “너 왜 학교 안 오니?” “나 인제 학교 그만 뛴어!” (...) 덕수는 구두땀이 통을 만든다는 것이었읍니다. 동조는 자기가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몹시 거북했읍니다.⁴³⁾

43) 손창섭, 『마지막 선물』, 『새벗』, 1956.5, 25-30면.

1·4 후퇴로 내어 놓았던 서울은 다시 수복되었다. 피난 갔던 사람들은 하나 하나씩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와글거려었다. 총무로 피엑스 앞에는 외국군인들이 언제나 뒤끌어대었다. (...) 어느날 신문을 팔러 나갔던 [태섭이는 “어머니” 하고 소리치면서 들어 왔다. “난 부대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루 언덕 아래있는 [모다푼에서 일해요. 그곳에서 나같은 애를 하나 구한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볼래요.” 어머니는 요즘에 갑자기 어른처럼 되어진 태섭이를 미덥게스리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네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일을 감당해 낼것 같니? 이제 중학교가 시작하면 학교두 다녀야 할 터인데.” “염려 말아요. 학교는 언제 시작할지 지금 같아서는 알 수도 없는 걸요.” (...) -저것도 저이 아버지만 계시었다면 저렇게도 고생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을……하고 생각하니 더욱 설음이 북바쳐 올라왔다. 태섭이 아버지는 6·25전까지 어느 신문사에서 편집일을 보다가 인민군에게 납치되어 이북으로 끌려간 것이었다.⁴⁴⁾

이 글은 서론에서 손창섭의 아동소설은 연구 선호도에 편차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그의 작품에 ‘어린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어린이의 바른 성장에 대한 믿음 없이 아동문학 창작에 임한 것’⁴⁵⁾ 이념가 할 정도로 작중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아동문학과 유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손창섭의 소년소설에서 폭력은 일상화된 폭력이어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향해, 어른들 역시 아이들을 향해 서슴없는 폭력을 휘두른다’,⁴⁶⁾ ‘주인공의 눈에 비친 세계는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환멸 그 자체이다’,⁴⁷⁾ ‘손창섭 소년소설은 유년 시절의 상처로 인해

44) 김이석, 『해와 달은 누구를 위해』, 『새벗』, 1955, 11, 16-18면.

45) 송수연, 앞의 논문, 31면.

46) 최명표, 앞의 책, 270면.

47) 서동수, 앞의 논문, 163면.

지나친 비극의 세계로 떨어진다'⁴⁸⁾ 등 리얼리티에 대한 지적도 같은 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손창섭의 소년소설이 보여준 가감 없는 진후 현실 묘사의 문제를 성인문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가의 한계나 그가 극복하지 못한 유년의 트라우마로 해석한다면 손창섭의 아동문학은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손창섭 소년물의 아동문학적 자격은 이미 '1950년대 『새벗』'이 게재로써 확인하여, 연구자들이 제기한 현실성의 문제는 아동문학의 범위 내에서 이해해야 할 숙제임이 명확해진다. 당대 순수 아동문학가 이원수는⁴⁹⁾ 리얼한 표현과 내용은 소년소설의 생명력이며, "현실적인 아동을 성장시키기 위해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아동의 세계를 그리는 것을 무슨 아동문학의 이단적인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후진성에서 오는 커다란 과오"라고⁵⁰⁾ 소년소설의 현실성에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동화의 공상성 대신 소년소설이 갖고 있는 '현실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손창섭의 소년소설에 있는 당대 사회를 향한 작가의 시선과 어린이를 향한 진솔한 발화의 태도나 심정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소년소설의 현실성이란 단순히 주인공의 두 발이 땅(ground)에 착지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소설은 동화 세계를 떠나 현실 사회의 일원이 된 아동들에게 탈 동심주의, 탈 아동천사주의로 문학적 독려를 맡아한다. 소년들에게 진정한 '선(善)', 혹은 인간성을 알려주기 위해 '나쁜 것'과의 대결, 투쟁, 고민, 시련의 많은 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⁵¹⁾

48) 송수연, 앞의 논문, 31-32면.

49) 이원수는 소년소설 장르가 출현·성행했던 동시대의 인물로(등단:『고향의 봄』, 『어린이』, 1926) 근대아동문단 정비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가 이끈 『소년세계』는 소년소설, 애국소설, 모험소설, 탐정소설 등 구체적인 한정사로 세분한 많은 소설을 소개했다. 이것은 이원수가 어린이 문학의 하위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글에서 이원수의 정리를 인용하는 이유이다.

50) 이원수, 앞의 책 103면.

51) 이원수, 같은 책, 110면.

과정에서 전제되는 것이 현실성이다. 현실성은 인물묘사에도 관여한다. 관념으로 미화시킨 인물을 이상형으로 내세우는 대신 공감을 일으키는 인간의 실제적 면모를 노출함으로써 소년소설은 이상주의적 교훈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물의 개성적인 면과 사는 형편을 톺진하게 그려 독자와 주인공의 괴리를 없애는 것은 인간의 휴머니티를 논하는 문학의 진솔성과도 연결된다. ‘설령 그 이야기가 속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담긴 주제가 고상하다면⁵²⁾ 소년소설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주제의 고상함은 현재의 문학 시장에서도 그러하듯이 출간을 허락한 관계에서 따져야 할 문제이다.

‘현실성’은 이 글에서 손창섭의 소년소설과 성인소설을 나란히 들 수 있게 하고, 비교하여 희망을 논할 수 있게 하는 손창섭의 세계관이 되기 때문에 작품 분석 전에 정확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소년소설에 특화된 현실성과 『새벗』 게재, 어린이문고 기획 출판을 바탕으로, 손창섭은 연구자들의 염려보다 소년소설 장르를 더 정확히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생활의 경험과 내면의 비밀로 글을 쓰는 자세에서 마침내 인물들과도 친열(親熱)해 졌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 작가이다.⁵³⁾ 소년소설 장르의 특징이 손창섭이 체화시킬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색채의 것이었더라면 그는 유년에 대한 연민과 독려를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손창섭은 소년소설의 자유로운 리얼리티를 작법으로 하여 그의 성인소설에서처럼 주린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면서, 자신이 포용하는 어린이군에게 절망을 대신할 삶의 바른 자세를 전하는 방식으로 장르의 미덕을 완성하고 있었다.

52) 이원수, 같은 책, 113면.

53) 손창섭, 『나의 作家修業』,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55, 9, 136면; 손창섭, 『여담』, 『문학예술』, 1955, 11, 17-18면. 참조.

5. 결론을 대신하여

소년소설은 기본적으로 소설적 미학을 바탕으로 씌어져야 하되 국가의 식, 문화교양, 민주정신, 우정, 가족애 등 감격을 동반한 지적·정서적 감화 요소를 수반하여야 한다. 외양은 범속한 어른의 세계를 취하고 있지만 서사의 구조 속에는 분화하는 아동에의 세심한 고려가 융해된 연합적 성격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손창섭이 쓴 소년소설에도 아동을 향한 작가의 분명한 이상이 소재한다. 그러나 그의 가치 제시는 꽤 이단적인 성격의 아동문학으로 왜곡되어 보이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손창섭의 소년소설에 오해나 편견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 장르적 성격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의 작품과 장르가 형성하는 현실성의 긴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리얼리티에 대한 문제제기는 손창섭의 소년소설이 손색없는 아동문학의 데코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새벗』은 손창섭의 아동물을 다른 아동 산문문학과 함께 동화 혹은 (어린이)소설 란으로 배치하고 ‘동화’·‘소설’·‘소년소설’이라 소개, 표기하고 있었다. 1950년대에 이르도록 동화와 소설이 아동산문이라는 경계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시비를 무시하고 소년물로서의 정합성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한편, 아동문학은 전달력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창작에 몇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손창섭의 작품들은 내용상으로는 현실의 범속한 행로에 발붙인 10대 초반의 아동들의 관심사를, 형식상으로는 빠른 템포와 간결한 문장을 만족시키면서 유의하여야 할 아동문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 글은 손창섭의 소년소설 여덟 편에 대한 최초 발표본을 찾아 그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작품의 서지적 전모를 정리하고, 1950년대 『새벗』이 자임한 역사적·민족적 책무와 의의, 10대 어린이들에게 애독된 소년소설의 장르적 특질을 밝혀 손창섭의 아동문학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글은 소년물 창작의 의

미를 통해 그의 아동문학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작가의 심연에 침잠한 사적 체험을 텍스트 안에서 재구성하는 재귀적 원리를 의심해 볼 수 있음을 확인하며 성인소설과의 연계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실례로 1958년 발표된 『너 누구냐』와 같은 해 발표된 성인 단편 『죄 없는 형벌』 두 작품은 인물간의 갈등 구조가 매우 흡사한 관계에 있고, 1956년 발표된 『마지막 선물』의 ‘덕수’와 1957년 발표된 『저녁 놀』의 ‘인갑’은 유사한 부자(父子) 환경에 놓인 소년들이다. 『싸우는 아이』(1960~1961)와 『낙서족』(1959)의 주인공들은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감과 모험의 상상력을 공유한다.

1950년대 『새벗』은 6.25전쟁 후 어린이들을 위한 독물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문학 작품을 제공하여 전쟁이라는 불행한 현실에 처한 아동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잡지였다. 범속한 서정이 주조를 이루는 손창섭의 어린이 소설은 『새벗』의 지향성과 ‘소년소설’의 현실성을 통해 초극할 수 없는 폭력이었던 유년에 잠재한 희망의 담론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아울러 이 희망의 담론은 당시 어려운 현실에 대조하여 민족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아동문학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했다.

이 글은 손창섭의 소년소설이 성인소설과 무관하지 않으며, 시대적 희망의 제시라는 점에서 손창섭 소설의 새로운 독법을 포함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의 소년소설이 성인소설과 연결되는 지점과, 성인소설에서 다하지 못한 희망에 대한 유년의 갈망과 소설적 발현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에서 이어서 논의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손창섭, 『꼬마와 현주』, 『새벗』, 새벗사, 1955.11.
_____, 『마지막 선물』, 『새벗』, 새벗사, 1956.5.
_____, 『심부름』, 『새벗』, 새벗사, 1957.5.
_____, 『장님강아지』, 『새벗』, 새벗사, 1958.1.
_____, 『너 누구냐』, 『새벗』, 새벗사, 1958.7.
_____, 『돌아온 썬리』, 『새벗』, 새벗사, 1958.11.
_____, 『싸움동무』, 『새벗』, 새벗사, 1959.3
_____, 『싸우는 아이』, 『새벗』, 새벗사, 1960.6~1961.6.

- 손창섭, 『손창섭 대표작전집 V』, 예문관, 1971.
_____, 『싸우는 아이』, 대한기독교서회, 1972.
_____, 『싸우는 아이』, 성서교재간행사, 1986.
_____, 『장님 강아지』, 우리교육, 2001.
_____, 『싸우는 아이』, 우리교육, 2001.

2. 단행본

- 김상선, 『신세대작가론』, 일신사, 1982.
김상욱 외, 『한국아동청소년문학장르론』, 청동거울, 2013.
김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14.
손창섭, 『손창섭단편전집1』, 가람기획, 2005.
_____, 『손창섭대표작전집 I』, 예문관, 1971.
염희경,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경진출판, 2014.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한길사, 2001.
이재복, 『우리동화이야기』, 우리교육, 2004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_____,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83.
_____,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b, 2014.

3. 논문 및 기타

- 김이구, 『소년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작은 어른’ 서사 - 손창섭 소년소설 『싸우는 아이』』, 『어린이 문학』 35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2001.9, 20-31면.
- 김계곤, 『소설가가 쓴 동화 한 편, 손창섭 『싸움 동무』』, 『아동문학의 현실과 꿈』, 창작과 비평사, 2003, 235-242면.
- 김희진, 『손창섭 장편소설 『유맹』에 나타난 내셔널리즘과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연구』, 『국제어문』 제74집, 국제어문학회, 2017, 117-141면.
- 마상조, 『두 <<새벗>> 이야기』, 『아동문학평론』 제31권 2호, 아동문학평론사, 2006.05, 240-251면.
- 박영기, 『1950년대 한국전쟁시기 아동잡지의 문학 교육적 양상과 의의-아동구락부,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vol.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351-386면.
-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죽>>에 관한 일고찰-자전적 소설과 세대론의 관점에서』, 『한국현대문학회』, 2003, 299-328면.
- 서동수, 『환멸의 세계와 문제적 개인의 탄생-손창섭의 『싸우는 아이』를 중심으로-』, 『문화와 번역』 제21집,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동화외번역연구소, 155-174면.
- 손창섭, 『나의 作家修業』,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55.9, 136-139면.
- _____, 『여담』, 『문학예술』, 1955.11, 17-18면.
- 송수연, 『손창섭 소년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임성규, 『이기와 위선에 맞서는 이유 있는 싸움의 기록 - 손창섭의 『싸우는 아이』(대 한기독교서회, 1972)-』, 『어린이문학』 77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2009.6, 173-181면.
- 장수경, 『어린이 잡지 『새벗』의 성격과 의의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6, 55-86면.
- 장영미, 『손창섭 소년소설 연구 - 싸우는 아이와 장님 강아지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학회, 2009, 1-13면.
- 최명표, 『세계의 폭력성에 대한 탐구 방식 - 손창섭론』, 『한국근대소년소설작가론』, 한국학술정보, 2009, 262-286면.
- 한정동, 『아동문학의 현상』, <동아일보>, 1955.1.25., 제4면.

<Abstract>

The Bibliography publishing history of Sohn Chang Seop's Juvenile Fiction and the meaning for the creation of Juvenile literature

—Focused on “Saebeot” Presentations from 1955 to 1961

Yang Hanul

This studying explores the genre characteristic of children's literature of the new generation author, Sohn Chang Seop who novelized the desperate atmosphere and individual experience after the Korea War in the 1950s. Studying first publication of eight juvenile fictions of Son Chang Seop which has been published up to now, was summarized in Bibliography whole story of the works that were not tried up until now, and the nature of the 1950s children's magazine “Saebeot” and illuminates characteristic of Juvenile Fiction genre the children have enjoyed reading in 1950s, and tri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reviewing of Son Chang-sup's children's literature.

Between 1955 and 1961, Son Chang Seop's novels which were published in “Saebeot,” are planned and republished as children's books and novel anthology. It is confirmed that Son Chang Seop's works tend to be similar to each other in comparison with juvenile fictions and adult novels from publishing time confirmed. Son Chang Seop's Juvenile fictions are different from adult novels in that it implies the nature of hope, In this studying, tried to reveal the discursive characteristics of Son Chang Seop's children novels of from the relation of transmission

medium. In the 1950s, “Saebeot” with Son Chang-sup participated in a children's magazine that practised a critical will for fostering childhood as a hopeful future mainstreams through infiltration through literature after the Korean War. The chosen Juvenile Fiction s by him was a genre of children's literature that conveying the writer's gaze toward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feelings toward the children with the 'reality' which was vivid.

Through the meaning of the creation of Juvenile fictions, Son Chang Seop was able to know that he had conveyed the story of comfort and the right life to the children of the future of the nation by using the private experience which was absorbed in his abyss as in the adult novel, as the power of utterance. Son Chang Seop's Juvenile literature suggested a new reading method studying Son Chang Seop's novel in that he allowed him access to the child's desire and the fictional revelation of the hope that he could not say in adult novels.

Key words: Sohn Chang Seop, Juvenile Fiction, Reality, 1950s, Saebeot, Children's literature

투 고 일 : 2019년 7월 26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19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